

작년 항생제 판매량 2019년과 유사

판매량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내성률도 증가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닭·소 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020년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을 지난 21일 발간했다.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 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축산물 항생제 판매량(한국동물약

품협회) ▲가축, 도체, 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을 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 판매량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 가축·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연동하는 추이를 보였다.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닭, 소의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

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농가는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 후, 그 내역을 기록하며 ▲예방접종 실시·차단 방역·위생적인 사육관리로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축산물이거나 축산물 가공품을 조리 시 식중독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준수해 내성균이 사멸되게 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으로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공동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국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항생제 내성균 전파 차단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문건설 생존권 확보’

전건협 전북도회 신임 회장 보궐선거 유립건설 임근홍 대표이사 단독 후보 등록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이하 협회) 제12대 회장 보궐선거에 (유)유립건설 임근홍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앞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선거공고 후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으며,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단독으로 등록된 임근홍 대

표이사를 후보자로 확정했다. 임근홍 후보는 ▲전문건설 생존권 확보 ▲수주물량 확대 및 전문건설 활성화 ▲소통과 단합으로 하나되는 협회 ▲협회 역량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사임서 제출로 권위회 회장의 보궐을 위해 실시되며, 회장 선출은 재직 대표의원 115명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대표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임시총회는 오는 11월 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출발점은 ‘농촌주택 혁신’

농진청·농촌건축학회, 온라인 학술 토론회 농촌 경관 조성 건축디자인·소재 개발 등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22일 일 농촌 재생 농촌주택의 재탄생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30 미래 발전전략을 세우고 '살고 싶은 농촌' 및 포용적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청년 주도의 디지털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촌 재생, 농촌다움을 살리는 농촌 만들기, 삶의 공간인 농촌주택의 혁신적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의제를 바탕으로 최근 농촌주택의 디자인 소재 등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주택정책 현황과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 농촌주택과 적용기술 ▲농촌다움을 살리는 한옥건축 ▲농촌경관을 만들어가는 건축디자인 ▲농촌건축의 다양한 소재 개발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농

촌건축의 디지털 소재의 변화가 농촌다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가 농촌다움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농촌건축의 발전 방향을 찾고, 미래 농촌의 모습을 그려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디지털 기반 농촌공간재생 연구 추진을 통해 농촌다움이 보전되고, 스마트한 미래 농촌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조지아주 엘리제이시에 미국인 생활환경을 고려한 한옥을 수출하고, 60세 규모의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농촌건축학회 남해경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언된 의견을 토대로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촌주택의 혁신적 변화를 모색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물려준 일자리 창출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기후변화 대응 전기안전 미래 기술

전기안전공사, '2021 전기안전 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래 전기안전 기술교류의 장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 22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박지현 사장, 제주특별자치도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 대한전기학회 김문재 회장, 전기기술인협회 제주도회 정제행 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와 온라인 참여자 등 4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1 전기안전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안전 미래 기술'을 주제로 윤·오프라인 동시 진행

된 올해 전기안전 기술세미나에서는 ▲한인대 이방욱 교수의 'MVDC 전력망용 DC 케이블·차단기 연구개발 현황' ▲광주과학기술원 김윤수 교수의 '전력시스템 및 전력설비 고장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삼성SDI 김도완 그룹장의 'ESS 세계 시장동향과 시스템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최근 산업계의 중심 화두가 되는 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뤄졌다.

박지현 사장은 "지구촌 기후 변화로 인해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22일 열린 전기안전기술세미나에서 기조연설 중인 박지현 사장. "탄소중립 시대를 구현할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함께 새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축전주매일 창간

www.fplove.or.kr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일 받고~

315 농지연금지급01 1,160,000
415 농지연금지급02 1,160,000
0515 농지연금지급03 1,160,000
0615 농지연금지급04 1,160,000
0715 농지연금지급05 1,160,000
30815 농지연금지급06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07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8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9 1,160,000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가입혜택

- ▶ 소유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보장
- ▶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 ▶ 6억 이하의 농지 재산세 감면

가입조건

- ▶ 연 령 : 만 65세 이상 농업인
-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 대상농지 : 전·답·과수원(실제 영농에 이용)
- ▶ 수령방식 : 종신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KF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은행부 fb
☎ (063) 580-1015



전북은행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중간책 검거까지

공로 인정받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경원동 지점에 근무 중인 정영웅 대리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현금피해 예방 및 중간책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완산경찰서로부터 지난 22일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정 대리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경 고객과 신용대출 상담을 진행했는데, 해당 고객은 상담을 마친 후 지점을 떠난 지 10분 만에 돌아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7,5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리는 고객이 적지 않은 돈을 현금 인출하려는 점과 좌불안연인 모습을 수상히 여겨 자세한 정황에 대해 대화하며 고객을 안심시켰다.

고객은 배우자가 A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이를 진행 하던 중 B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로 정부보조금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앞서 A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환하려 했으나 이틀이 위약금을 현금으로 요구해 위약금 납부를 위해 대출 신청과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 이에 보이스 피싱임을 확인한 정 대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완산경찰서 남문 지구대가 즉시 출동 해 적극적인 수사로 보이스피싱 중간책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인출되지 않은 5,000만원을 회수해 재산 피해를 막았다. /김윤상 기자

혁신문화 확산... 전개공, 언택트 혁신콘서트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경영 혁신 추진력 제고와 내부 직원의 혁신 마인드를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한 행사로 '2021년 JBDC 혁신콘서트'를 코로너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사내 방송으로 실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천환 사장의 개회 선언(동영상)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포상 등 4시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든 다양한 혁신문화 환류 프로그램 시청 등으로 진행했으며, 임직원들은 혁신 경영문화 정착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내 소통을 강화하고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예능 형식의 JBDC 북면가왕전, 토크쇼 등을 통해 방식은 언택트지만 직원간의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과 경품행사도 마련돼, 임직원들의 사기 함양에 도움을 주었다. 김천환 사장은 "모든 임직원은 이번 JBDC 혁신콘서트를 통해 혁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고객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NH농협은행 전북영업부

‘외환 감동스토리’ 고객에 선물



NH농협은행 전북영업부(부장 양을영)는 ‘외환 감동스토리’ 고객으로 (유)대민유통(대표 박종국)을 선정하고 기념선물과 꽃바구니를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외환 감동스토리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로 지금까지 농협은행 외환서비스 이용 고객 중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다.

(유)대민유통은 김제시에 소재한 수산물 도소매업체로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10년 넘게 농협은행과 외환거래를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가

황에서 유가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특별한 인연이 있다. 양을영 부장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농협은행 외환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100년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